음주단속 걸리자 불법유턴 줄행랑 '사고날 뻔'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 동행해 보니

거리두기 해제에 풀어진 음주운전
"설마 걸리겠어?" 운전하다 낭패
광주·전남 음주사고 매년 1천여건
가정 파괴하는 사망사고 잇따라
'달리는 흉기' 근절대책 마련 시급

광주북부경찰은 14일 밤 11시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운전자를 전남대 캠퍼스 안에서 붙잡았다.

영광에서 전역 5개월을 남긴 병사가 해안경계근무 중에 돌진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시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는 어린 두딸을 둔 가장이 부업으로 대리기사 일을 하던 중 교통섬에서 신호대기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11월 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달랐지만 모두 음주 상태였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해제로 3년만의 연말 음주·회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북부경찰이 지난 14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행복어울림센터 앞 왕복 4차선도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밤 11시께 검은색 소나타 한대가 음주단속 지점을 100여m 앞두고 '끽~' 소리와 함께 불법 유턴을 하고 도주했다.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소나타 차량이 전남대 정문으로 들어가자, 순찰차 4대를 2대씩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 나눠 도주 차량을 뒤쫓았다. 운전자는 전남대 종합운동장쪽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200여m를 뒤쫓아 운전자 A(26)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A씨는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정주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은 "피의자가 전남대로 도주해 자칫 잘못하면 운동하고 있던 시민들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1363건→2020년 1485건→2021년 1215건으로 꾸준하다.

올해 10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842건에 달했다.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2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해에는 2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0월까지 9명이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11월 초에만 2명 이상이 숨졌다는 점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음주운전 적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 음주 교통사고가 더 늘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전남에서 올 초인 1~3월은 평균 720여 건이었지만 4월 이후 한달 평균 930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운전자나 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에 대해 너무나 둔감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가능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현 광주경찰청 교통과장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면 차량은 흉기로 돌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

광주·전남 끼임 사고 주의보
나주 40대 사망·광주선 부상

광주·전남에서 잇단 끼임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역작업을 하던 40대가 기계장치에 끼여 숨지고, 공장 관리자가 기계를 점검하다 팔이 끼여 부상을 당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나주시 금천면의 한 창고에서 차에 실린 왕겨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A(42)씨가 4.5t 탑차 짐칸 내부에서 하반신이 끼여 숨졌다.

A씨는 농가에서 구입한 왕겨를 가공해 인근 축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하역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홀로 탑차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다 바닥에 설치된 스크류에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5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한 배터리 제조업체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기계에 한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팔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급 직원인 B씨는 가동중인 기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선거법 위반 내가 뒤집어써줘'
허위사실 유포 70대 징역형

상대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신 처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참인 지난 4월 30일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했다. 모든걸 책임지고 도왔지만 선거 이후 전화 한 통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정선 후보가 사정해 그 죄를 내가 둘러쓰고 구제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7회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해 A씨가 대신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교육감선거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난 차량 의식 잃은 운전자 생명 구한 '용감한 시민들'

길 가던 2명, 유리창 깨고 구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60대 운전자가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15일 광주동부경찰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동구다목적체육관 인근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의식을 잃은 채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던 탓에 엔진룸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까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마터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근처를 지나던 시민 2명이 곧장 구조 작업에 뛰어들어 A씨의 생명을 구해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아직 차내에 A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한 시민이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 3차례 차 문을 당겼으나 잠겨 있었다. 시민들은 "유리창을 깨야 한다"고 소리쳤고, 한 시민이 자신의 차에서 야구 방망이를 챙겨왔다.

야구 방망이로 '깡'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4차례 내리치자, 소리를 들은 A씨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시민들은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연신 "빨리 나오라"고 외치며 A씨를 부축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소됐으나 A씨는 왼쪽 손등에 2도 화상만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 신유익(여·26)씨는 "근처를 지나다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잠깐 차를 세웠는데, 그 차량 하부에서 불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며 "불이 나는데 소방관도 경찰관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 운전자를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마침 사회인야구단 활동을 하고 있어 야구 방망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덕에 운전자를 빠르게 구조할 수 있었다"며 "A씨가 경미한 부상만 입어 정말 다행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 직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구조 활동을 벌인 신씨 등 시민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중 1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구시청 일대서 심야 패싸움
광주경찰, 외국인 10명 입건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에서 패싸움을 벌인 고려인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은 고려인 3세 8명과 러시아인 2명 등 외국인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고려인 8명과 러시아인 1명은 신병을 확보해 불구속 수사 중이며 러시아인 1명은 도주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주다방 앞 거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밀쳤다'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고려인들은 고려인마을에 거주 중인 10~20대 고려인 3세이며, 러시아인들은 20대 중반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러시아인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3682	1	나주시 대호길45-17, 102동 12층 1203호[대호동,호반리젠시빌] 84.883㎡	아파트	176,000,000 176,000,000	
2022타경4203	1	광산구 사암로215번길16, 101동 19층 1905호 59.67㎡	아파트	160,000,000 160,000,000	
2022타경5213	1	북구 서하로417, 103동 6층 605호 84.990㎡	아파트	184,000,000 184,000,000	
2022타경67921	1	북구 대천로195, 101동 6층 605호 [문흥동,현대아파트] 127.691㎡	아파트	410,000,000 410,000,000	
2022타경68344	1	남구 노대실로89, 709동 1층 103호 [노대동,송화마을휴먼시아] 84.96㎡	아파트	326,000,000 326,000,000	
2022타경69088	1	북구 양산제로50, 101동 13층 1308호[연제동,새한아파트]59.95㎡[토지별도등기있음]	아파트	116,000,000 116,000,000	2022타경5411 [중복]
2022타경69934	1	북구 북문대로170번길7, 101동 6층 605호 [운암동,우미아파트] 59.97㎡[공유자신연석1/6지분전부]	아파트	21,000,000 21,0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68795	1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66-17 단층56.19㎡ 제시외 차양 등66.4㎡	단독주택	278,396,850 278,396,8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매각.목록3공부상등재된부속건물단층창고9.91㎡현황소재불명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1-3 549㎡	대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66-17 1호 단층42.97㎡ 부속건물 단층창고9.91㎡[주택및부및제시외건물변소및창고는인접지'1-13번지및1-27번지'지상소재로보이나인접지와의지적경계불명하므로정확한위치및경계측량요]	단독주택		
2022타경68887	1	북구 두암동 920-6 182.3㎡	대	243,105,205 243,105,205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매각
		북구 삼정소로길 81-4 1층91.665㎡ 2층65.22㎡ 부속건물 단층창고1.8㎡ 단층변소1.08㎡ 제시외 다용도실 등15.3㎡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68962	1	서구 화정로179번길17-5, 2동 1층 2호 59.49㎡	다세대	40,000,000 4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5121	1	북구 동림동 산106-1 22621㎡[김형진1/11지분전부.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하고정확한경계측량요.지상분묘소재]	임야	316,693,300 316,693,3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65581	1	북구 대촌동 513 1382㎡[정연선1/14지분전부.본토지도시공사가2022.08.26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신청하였으며,수용재결후토지소유자가협의응하지않을경우광주지	전	62,291,000 62,291,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매각지분해당하는수목포함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22타경65581	1	방법원에보상금공탁할계획임[2022.10.05자사실조회회신서참조]]			.분묘3기소재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4 278㎡[정기열2/13지분전부.지번일반건축물대장에전라남도소유의점포91㎡,정순섭[채무자의부]소유의조립식판넬조주택90.72㎡존재하나현황상존재하지않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모두전라남도소유임]]	대	53,218,410 53,218,41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일괄매각.매각지분해당하는제시외건물,매각지분해당하는수목포함매각.목록4,5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3일반건출물대장상용도'단독주택,소매점이나등기사항증명서상주택',현황주택으로추정
2022타경66829	1	동소 104-8 423㎡ 제시외 화장실및창고18.9㎡[정기열2/13지분전부.공부상지목전이나현황단독주택건부지이용중[주거시설전용목적으로전용허가이루어짐[2022.09.28사실조회서참조]]]	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335 1동호 단층99.2㎡ 제시외 창고 등99㎡[정기열2/13지분전부]	단독주택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3-1 880㎡[정기열2/13지분전부.지상매각외비일하우스소재]	전		
		동소 104-5 74㎡[정기열2/13지분전부]	전		
2022타경68481	1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437 1074㎡	답	34,368,000 34,3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4494	1	서구 시청로96번길12, 12층 1217호 [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29.08㎡	오피스텔	61,000,000 61,000,000	2022.07.22자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기준관리비약380만원미납된상태
[자동차,중기]					
2022타경69644	1	사용본거지:서구 유촌동 871번지 상무버들마을2단지아파트 212동 903호 등록번호:81머2348 차명:포터II 연식:2018[보험사고내역없음,현재배터리방전상태.자동차등록원부상주행거리34,425㎞이나계기판상주행거리48,268㎞]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광산구우산동218-5[서창다리주차장,010-8466-0864]
2022타경73605	1	사용본거지:서울 성동구 마장로35나길 394층[마장동,신진빌딩] 등록번호:49호3400 차명:쏘나타 연식:2020[LPG차량,배터리방전된상태이며앞번호판없음.사고이력상대차피해1회,영업용도[대여용]사용이력있음]	자동차	21,000,000 21,000,000	보관:북구삼각동754-3번지[글로벌주차장,010-6245-1001]
[기타]					
2022타경4364	1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51-2 10469㎡[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강나무]포함매각.인접필지[51,51-1,산6-2,산20번지]와경계구분없이이용중]	과수원	822,204,000 822,204,000	지상폐우물및매각제외저온창고컨테이너1동소재
2022타경68702	1	서구 매월1로62번길16, 각층 703호 1층56.29㎡ 2층90.36㎡ 3층91.87㎡ 4층96.01㎡ 5층94.45㎡ 6층96.12㎡ 7층142.13㎡[공부상각층지분소유하고있으나,실제론호별로차량전시및보관장소위치특정하여이용중이며그위치7층과옥상일부,호별배치도와다른위치에서이용중]	기타	626,000,000 626,000,000	차량보관장소위치는건물바닥공사,사무소간경계조정등사유로변경될가능성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11. 30.[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12. 7.[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표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두현